

학술단신

“불교의례 미신이나 우상 아니다”

‘...상장례법’ 심포지엄

조계종 불교어사학연구소(학장 인목 스님)는 17일 오후 3시 30분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한국종교의 사상관과 상장례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기인한 각 종교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와 주제는 △노인숙(중앙대 중문학과 교수) ‘한국유교의 사상관과 상장례’ △임재해(안동대 국학부 교수) ‘민간의 상장례 풍속과 놀이문화’ △오세중(강리교 인사교회 목사) ‘한국개신교의 영혼관과 장례절차’ △김득수(전국연령연합회장) ‘한국가톨릭의 장례식과 연례회’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한국불교의 영혼관과 시타리법’ 등. (02)921-3425

불교학회 추계발표회

한국불교학회(회장대행 목정배)는 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2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승행법의 비교고찰-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정법과 호법의 공유논쟁에 대하여-김치은(철학박사) △화엄밀교적 원형으로서의 오대산 만다라-김영재(동국대 박사과정) △문제의 인명관과 이태승 교수(위덕대) △불정존승다라니경에 관한 연구-김영덕 교수(위덕대) △삼화상 법계의 성립과 유행-이철현 박사(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박물관 동원학술대회

한국고고미술연구소(이사장 정양모)는 10월30~31일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제2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 중앙박물관 김연수 학예연구위원과 조용중 학예연구위원의 ‘백제의 사리장엄’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 밖에도 ‘능산리 출토 동동향로의 조형과 관련(최용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위원)’, ‘일본의 조종문 토기의 분포양상(박종환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위원)’ 등이 발표됐다.

비판불교세미나 결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 결산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차 세미나가 열리니 래 여섯번째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학자 마츠모토 박사의 강연과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비판불교에 대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호성 교수 “중도적 의례관 정립” 제안

“만해 유신론의 의례비판 서구가치관 치우쳐”

불교의례를 일반적으로 ‘미신’ 내지 ‘우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만해 한운은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의례비판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서 자기문화화를 보면서 자기문화화 못한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한·일 국제학술교류회의에서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의 의례비판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가나요가(명상수행법)의 입장에 근거해 이항의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해스님의 의례비판은 선불교(지혜의 제사)와 의례(재물의 제사)의 회통을 도모하지 못하고 의례를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대자적(對自的) 수행의례로 승화·귀의시키지 못한 점이 유신론의 의례비판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송주(諷呪)와 같은 밀교적 행법(行法)이나 영불과 같은 정토적 행법이 대자적 수행의례로 승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만해스님이 철학적으로는 대승불교·선불교의 이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례론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일불(一佛)만을 신앙하던 초기불교 고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의례무용론의 단견과 의례일원론의 상견을 극복한 중도적 의례관 정립을 제기했다. “유신론에 의한 구원을 설하지도 않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의례 역시 수행”이기 때문에 ‘의례를 통한 해탈’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의 의례구조와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후

이시가지 정노 교수(石上善應, 日 대정대)는 “불교라는 표층(表層)인 민간문예의 교섭양상-오출세 교수(동국대) △한국 불교의례의 부대행사-김홍우 교수(동국대) △지반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를 검증한다.라다 고요오 교수(多田孝正, 日 대정대)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송경전과 그 변용의 특징-



△자매결연 대학인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는 매년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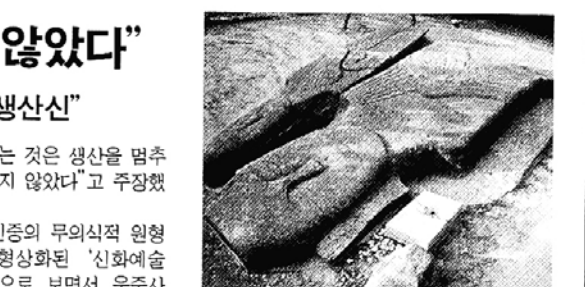
이시가지 정노 교수(石上善應, 日 대정대)는 “불교라는 표층(表層)인 민간문예의 교섭양상-오출세 교수(동국대) △한국 불교의례의 부대행사-김홍우 교수(동국대) △지반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를 검증한다.라다 고요오 교수(多田孝正, 日 대정대)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송경전과 그 변용의 특징-

“운주사 와불 일부러 세우지 않았다”

나경수 교수 주장... “와불은 민간신앙적 생산신”

화순 운주사의 누워있는 와불. 조각후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세우지 못했다는 학설에 대해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 화순경영포럼이 10월28일 화순군 민회관 대강당에서 ‘운주사의 신비를 벗긴다’를 주제로 발표한 나경수(전남대 국어교육과)교수는 “운주사 와불을 민간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왜 누워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며 “민간신앙적 입장에서는 생

산 신(神)인 와불이 서는 것은 생산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운주사를 민중의 무의식적 원형이 예술적 결과물로 형성된 ‘신화예술(mythography)’의 대상으로 보면서 운주사 신화의 중심에 있는 와불 전설에 새로운 관점을 대입했다. “와불을 한국신화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신체로 바꾸어보면 불교해석에서 오는 의문이



△전남 화순 운주사 와불

사라지며, 천불천탑도 수량적 의미보다는 ‘중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wwwkim@buddhopia.com)

“종교지도자 정치적 중립지켜야”

김성건 교수 ‘새천년 종교인의 역할’ 발표

종교가 사회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신앙보다는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활이 중요하며, 특히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회 종교예술제 학술세미나에서 수원대 김성건 교수는 ‘새천년 새로운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는 개인적인 구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관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중립 태도를 지킬 때 종교의 사회적 위상과 종교 본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진철승 교수는 “물질문명 중심으로 성장일로를 밟아 온 20세기의 반성으로 21세기에는 인간의 정신문화가 중시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종교별도 교수와 성직자들이 나와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했으며, 1백여 명의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본질 회복과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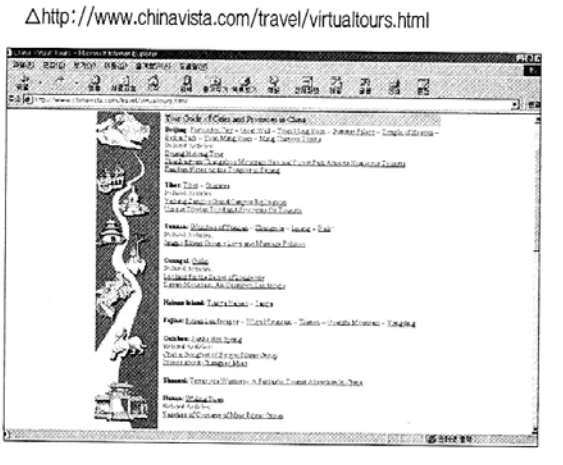
위덕대 ‘밀교학보’ 창간호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회(회장 김무생)는 개원2주년을 맞아 <밀교학보> 창간호를 발간했다. <밀교학보> 창간호에는 김무생 교수(불교학)의 ‘육자진언의 상징적 의미’ 장익 교수의 ‘한역 초기 밀교경전에 나타난 대승사상’ 김영덕 교수의 <금강정경>의 공양사상에 관한 연구’ 등 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밖에도 <밀교학보>에는 범한밀교 경전목록, 한국밀교 자료목록, 한국밀교 문화재목록, 초기 진각종사 연표 등의 부록을 수록, 밀교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 산시성

타통 원강석굴·우타이산 등 소개 中 불교예술의 아름다움 불기회

중국의 찬란한 불교예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시성을 소개한 사이트 ‘중국여행’을 방문하면 타통의 원강석굴 △우타이산 △우루무치 등 산시성의 웅장한 불교유적과 멋진 자연을 열람할 수 있다. 서역과 내륙을 잇는 길목인 산시성은 역사상 산악오지로 북방 기마민족과 한족의 접경. 중국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가장 화려했던 때는 선비족이 북중국을 통일한 4세기쯤. 그 후 당나라가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면서 번영이 됐지만, 성 명적은 15만6천년에 이른다. 다퉈의 가장 큰 볼거리는 원강석굴. 바위산인 우타이산 원강봉에 5만년 전 여계의 불상을 새겼다. 크기 17m에서 2m까지 다양하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고품질 석굴 사진에는 섬세한 손길과 화려한 색채로 자아낸 열화미소가 담겨있다. 원강석굴은 다퉈에서 서쪽으로 16km쯤 떨어져 있는데, 풍만·둔황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석굴로 53개의 석굴이 지그재그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6~20굴이 가장 웅장하다. 다섯 굴(16~20굴)은 1,530년 전 인도에서 건너온 탄야오 스님이 창건했다. 나머지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당시 석굴 길이가 1km에 달했다고 한다. 우타이산은 해발 평균 2000m의 만년 설산이다. 아메이·주화·푸위산(山)과 함께 중국 대 불교명산으로 꼽힌다. 주연봉을 가운데에 두고 왕하이·과웨이·진슈·예더우봉이 각각 동서남북에 뿔뿔 솟아 있다. 이종 최고봉은 해발 3,058m의 예더우봉. 다섯 봉우리에 걸쳐 절이 150여개. 타이화이전에만 47개의 절이 있다. 대부분 유·불·선이 융합된 모습이다. 선종·화엄종 등 13개 종파가 들어서 있다. 그래서 우타이산엔 ‘낮은 절을 보고 밤엔 불을 본다’는 말이 생겨났다. 108계단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우루무치는 실크로드의 초입으로 동부 천산맥 남쪽기슭에 자갈과 황토흙이 뒤섞인 사막같이 보이는 곳이다. 여기에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불교 경전을 구하러던 인도에 가는 도중 왕의 간청으로 1개월을 머물렀다는 가오창(高昌) 고성이 있고, 불상의 벽화로 유명한 화염산 석굴도 있다. 이 석굴의 벽화 중에는 파도치는 해변에서 가사를 걸치고 보현보살에게 합장을 하고 있는 현장법사와 땅에 엎드려 보현보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손오공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산시성의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여산 지역에서 발견된 90여기의 부장묘와 8천여개의 방마용, 호화찬란한 등차마, 그리고 중국 황제의 왕자와 공주들로 확인된 8기의 부장묘 등의 정보로 열람할 수 있다. 중국과 고고학자들은 이들의 묘지의 주인공은 진시의 왕자와 공주들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베이징, 광둥, 티베트, 몽골 지역의 유적 및 유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通度寺 鷲山 門徒會를 召集합니다. 오는 음력 10월 3일 (양력 11월 10일)은 先翁師 九河 老스님의 연고일입니다. 온 門徒의 정성을 모아 祭祀를 모시고 다 음과 같이 本寺 諸般 問題等을 協議코저 門徒會를 召集 하오니 빠짐없이 參席하시어 積極 協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 1999年 11月 10日 (陰曆 10月 3日) 13:00 場所: 본사 설법전 1999年 11月 2日 門徒代表 청하, 초우, 현산, 원명, 성파, 태응, 신허 門徒諸位

레이키 (REIKI)를 활용하십시오 레이키법은 세계 유일의 속성식 기동력자 양성 법입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레이키요법이 의료와의 협진 도구로 쓰이는 추세가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레이키법은 종교가 아닌 최첨단의 「氣의 과학」입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소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께 레이키법을 배울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1. 다발성 경화증 환자 가족 2. 다운증후군 환자 가족 3. 식물인간상태 환자 가족 4. 임산부의 남편 5. 간염환자의 소모되는 활력보충과 치료를 위해 6. 마약류, 술,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의 금단 증상 해소를 위해 7. 약제와 침에 氣를 넣어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한의사, 약사 8. 피부관리실 운영자 9. 단식원 운영자 10. 기공도장운영자와 氣 수련자 교육기관: 제3단계까지 3일소요 문의: 현대생활레이키연구소(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7가 89 피어선빌딩 전화: 02)720-5682 / 725-2311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지도자: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키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天安靈樂寺 창건낙성 개원 가족·문중 영탑 공원 준공 점안 雲藏 큰스님 大법회 의진: 雲藏큰스님 ■ 증명법사: 大愚 스님 ■ 주지: 泰寬스님 ■ 창건주: 淸一(조병선) ■ 화주: 靈龍(신영용) 淸料(허두) 전안의 명산 태조산을 등에 업고 백제의 조 도읍지 위례산 성지를 안아 부처님 주저에 天安靈樂寺를 창건하고 자연 조경이 절묘한 3천평 부지에 조성한 가족·문중영탑공원을 조성하여 大법회를 봉행하오니 동경인연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시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자성 본래물 날짜: 불기 2543, 11, 19일 오후 2시 장소: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정리 51-35 TEL: (0417)584-6674-6, 584-6335 FAX: (0417)584-2335 교통: 천안역, 터미널에서 70.7(입석) 700.71(좌석)버스 입장하차 ※점심공양은 天安靈樂寺에서 영탑사업본부 영탑분양 판매 설치 주문제작 \*가족, 문중 영탑분양: 천안 I.C 우회전 12km 입장 \*가족형, 문중형, 일반형, 종교형, 단체형 \*정원, 별장, 산소 기타지정 장소 설치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정규과정 학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과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계,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http://www.cyberbuddha.or.kr)